

데스크



조상운 편집국장

연일 여론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질문을 포함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하는 정기적인 여론 조사가 있다. 대선주자의 적합도를 묻는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또 지역별, 현안별 논란이 되거나 찬반 결정이 필요한 경우까지 여론조사는 비밀비제하다.

여론조사는 어떤 사회 집단의 여론을 알아보는 조사를 일컫는다.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알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 조사하게 된다. 나이, 성별, 지역, 종교, 직업, 학력, 소득 등의 요소에 따라 성향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 목적에 맞게 표본의 구성

여론조사

을 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발달로 비대면 조사가 일상화돼 있어 언제 어디서든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에 치러지게 되면서 본선에 진출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여야별로 진행되고 있다. 당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오는 11월까지 나란히 자당의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발하게 된다. 최종 후보로 뽑힐 때까지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보별로 공약 제시는 물론 말 한마디나 행동거지 등 세심한 대처가 필요한 당연지사이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 후보까지 이전투구 양상이나, 내부 총질까지 서슴없이 이뤄지며 내상(內傷)으로 본선에서 치명타를 입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어느 한쪽에선 “대세다, 역전이다”하고 있다. 또 다른 한 쪽에선 얽차락뒤차

락하는 지지율을 놓고 순위경쟁이 치열하다.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은 남은 기간 격차를 좁혀나가며 역전을 기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앞서가는 주자들에게 남은 시간은 더디게만 지나고, 뒤쳐져있는 후보군의 시간은 속절없이 흐른다. 그렇다고 여론의 흐름을 뒤바꿀만한 카드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요동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직 후보들 면면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았지만 지지자들의 성향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대통령선거는 전국적인 관심사여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여론의 향방은 강 건너 불구경인 경우가 허다하다. 오히려 내 주변의 인물들이 직접 선거 판에 뛰어드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제주지역인 경우 도지

사 선거와 도의원 선거를 둘러싼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관련 포인트이기도 하다. 추석연휴를 맞아 여론조사 결과가 붓물처럼 터져 나왔다. 본격 레이스가 전개되지 않으면서 순위에는 별차이 없는 분위기다. 정당 후보로 본선에 나가려면 한 발이라도 더 앞서야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흐름’을 강조한다. 현재의 지지율이 앞으로의 지지율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하면 여론의 흐름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선거전문들은 조사시점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유권자들은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정당)의 지지율을 관심있게 지켜보게 된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토대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정치권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가을, 겨울은 심사숙고의 계절일 듯 싶다.

사설

중요사안 해명 없이 제2공항 밀어붙이나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끝은 어디인가. 바로 그 중심에는 국토교통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의 행태가 문제여서 그렇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다. 지난 2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높게 나왔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환경부가 전라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제2공항을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에 반영해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2021~2025년) 공항정책의 추진 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종합계획에는 중장기 공항정책 추진방향과 핵심과제, 장래 항공수요 예측, 신

공항 개발 및 기존공항 이전 등 공항별 개발 방향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특히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선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도 감안해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가 왜 이러는지 모른다. 첨예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 없이 제2공항을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사실 국토부는 그동안 시종일관 이설뜨게 대응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발표 후 반대주민들의 각종 의혹 제기에도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했다. 국책사업이니 따르라는 식으로 6년 가까이 끌면서 도민 갈등만 키웠다. 때문에 국토부는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힐 필요가 있다.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물쩍 넘어간다는게 말이 되는가.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 동강난 제주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농작물 피해 대비상, 도·농협 총력대응을

농가가 지난달 하순 이후 잦은 비에다 태풍 피해까지 겹쳐 조비상이다. 가을잠마로 일꾼을 만큼 잦은 비가 8월말 이후 이어지고, 태풍도 강타하면서 발작물 피해에다 한달여동안 월동채소 파종작기를 놓친 농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 추세라면 특정작물 재배 실패현상에도 비상품 농산물 양산 등으로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도와 농협이 2년전 가을잠마-태풍피해 극복을 거둔바 있다. 선제적인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 줄인해야 한다.

가을잠마로 월동채소 파종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파종기였던 양배추 마늘 브로콜리 등의 경우 극히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파종을 못한 상태다. 현 시점에서 파종에 나선다 해도 다수 농가의 물이 심기로 심각한 인력난에다 시기를 놓친 까닭에 생육 지장·품질 저하로 이어질 공산도 높다. 이미 파종을 마친 월동무 당근 양배추 감

자 등은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유실, 병해충 등의 피해도 상당한가 하면 피해농가서 대체작물 파종에 나서면 특정작물 과잉생산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다 한달여동안 월동채소 파종작기를 놓친 농가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 추세라면 특정작물 재배 실패현상에도 비상품 농산물 양산 등으로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도와 농협이 2년전 가을잠마-태풍피해 극복을 거둔바 있다. 선제적인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해 줄인해야 한다.

가을잠마로 월동채소 파종 지연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달 파종기였던 양배추 마늘 브로콜리 등의 경우 극히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파종을 못한 상태다. 현 시점에서 파종에 나선다 해도 다수 농가의 물이 심기로 심각한 인력난에다 시기를 놓친 까닭에 생육 지장·품질 저하로 이어질 공산도 높다. 이미 파종을 마친 월동무 당근 양배추 감

열린마당

태풍의 첫 관문 제주, 119는 이렇게 대응



양영석 제주소방안전본부 구조팀장

태풍은 한여름부터 초가을인 7월, 8월, 9월에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내습하는 태풍들은 거의 3개월 기간에 집중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 제5호 태풍 장미, 8호 태풍 바비,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도 8-9월에 발생했다.

지난 제14호 태풍 ‘찬투’가 발생하자 제주소방은 기상특보가 발효됨과 동시에 비상근무에 돌입해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저지대 침수 상습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항포구 등 예방활동 및 수방장비를 100% 가동상태를 유지했다.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을 불시 점검하고 119신고가 폭주할 것을 예상

해 119 신고접수 수보대를 11대에서 17대로 증설해 비상사태를 대비했다. 119긴급구조통제단도 신속히 가동해 태풍 대응 태세를 갖췄다.

그리고 태풍을 대비해 지난 8월에 119 Safe 라인 900개를 제작, 일선부서에 개인별 배부했다. 비비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용에 비치했다가 위험요소 발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2차 안전사고 방지도 주력했다.

이번 태풍 ‘찬투’가 내습하자 차량에 고립된 운전자 등 3건 3명의 인명을 구조했으며, 신호등 파손 등 45건 안전조치와 건물 지하 등 배수 작업 36건 411t을 조치했다.

더욱이 제주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에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치사항과 사진, 영상물을 업로드해 도민과 언론사, 타시도에서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태풍이 관문인 제주가 태풍피해 저감을 위해 안내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재난에 민관 합심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 고집 때문”

원 전 지사, 문 대통령 비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원희룡 전 제주 지사가 23일 문 대통령을 향해 “압기가 끝나도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

원 전 지사는 이날 “코로나19가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

이어 “정부는 저렴한 에너지원을 외면하는 ‘급격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며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국민이 부담해야 할 탈원전 비용은 평생에 걸쳐 청구서로 받아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

여성 독립운동가 삶 무대에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제주 출신 강령국 선생에 대한 연극이 제작. 제주시는 다음달 9일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제4회 제주 소재

창작 연극-제주 항일 운동가 강령국’을 공연한다고 발표.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여태 조맹받지 못했던 항일운동가 강령국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다”며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과 공연 관련 사항은 한국연극협회 제주지회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

수능 마스크 의무 착용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제주 지역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16개 일반시험장(95(제주)지구 12개교, 96(서귀포)지구 4개교)과 2개 별도시험장, 2개 병원 시험장에서 치러질 예정.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2022학년도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공시.

지침에는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백신접종과 마스크 등에 대한 ‘수험생 응시 관련 묻고 답하기’도 수록.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양이오(1973.5.5생)
최후주소: 제주시 월성로2길 15-4(용담동)
상기자는 2021년 8월 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9월 8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333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학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를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 가능합니다.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만감류 매달기! 다인 굴고리
굴고리 안파고정판 안파밴드 굴고리작업세트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기! 굴고리 사용 방법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굴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전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굴,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원터치&조각판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소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대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줄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줄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롬 비스듬도 다르다!
굴고리, 유인추,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업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323-증-35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 제주소방서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법원 시청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756-2833